

고효율조명기기 No.1 ESCO로 이끌겠다 ESCO-Mart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 성민오 기자(minos@energycenter.co.kr)



(주)하이맥스 소개와 하시는 업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999년 (주)PO-SYSTEM이라는 ESCO로 출발한 (주)하이맥스는 2001년에 현 이주원 대표이사 취임 후 본격적인 ESCO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대전·충청지역의 학교 및 관공서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ESCO사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조명분야 외에 GHP와 보일러 등으로 취급품목을 확대하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신규 ESCO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련사업에 문외한이었던 저는 이주원 대표이사 취임 직후 영업 및 마케팅 분야에 잠시 참여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현재는 회사경영을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에너지전시회 기간중 열렸던 ESCO-Mart에서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수상근거와 더불어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주원 대표이사가 취임하고 법인변경이 이루어졌던 2001년 당시에는 대구·경북지역에 ESCO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신규업체로서 시장개척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약간이나마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대전·충청지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수백건의 사업을 수행하며 실적과 기술력 등의 노하우를 쌓은 후 대구·경북지역 시장을 개척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이 지역에서도 ESCO제도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큰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온 회사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잘했다는 의미보다는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에너지절약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자세로 회사

ESCO-Mart 산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주)하이맥스 윤인숙 부사장은 "고효율조명기기 No.1 ESCO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두에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 에너지절약의 차원에서 단 1%의 절약이라도 이뤄낼 수 있다면 수주금액에 상관없이 착수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방침입니다. 수지가 맞지 않아 적은 액수의 사업에는 손대지 않는 업체가 다수이지만, 저희는 에너지절약의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작은 규모의 ESCO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경영에 임하겠습니다.

ESCO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ESCO 설립이 활발해지고,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도 신규ESCO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하이맥스의 경쟁력과 마케팅 및 경영전략은 무엇인지요.

저희는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있어서 하청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전기공사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기술사와 전기공학박사 등 우수인력을 중심으로 마케팅에서부터 시공·설치, 사후관리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ESCO라는 것이 강점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에너지절약의 차원에서 단 1%의 절약이라도 이뤄낼 수 있다면 수주금액에 상관없이 착수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방침입니다. 수지가 맞지 않아 적은 액수의 사업에는 손대지 않는 업체가 다수이지만, 저희는 에너지절약의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작은 규모의 ESCO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에는 국내 ESCO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실패란 없다'는 마인드로 회사를 꾸려 왔습니다. ESCO를 처음 맡아보지만 부사장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국가에너지절약에 기여한다는 나름대로의 긍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실했던 기업을 현 대표이사께서 인수했던 지난 2001년 이후 제 손으로 하나하나 실적을 올리며 탄탄한 ESCO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2년간 매년 100% 이상 매출이 성장했지만 아직까지도 연간 매출액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내

년의 매출목표액은 200억원' 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고효율조명기기 분야에서 는 국내 1위의 ESCO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두에서 지휘하겠습니다.

